

環境文化 遺産의 保全

— 이탈리아의
환경 파괴
교훈에 부침 —

安 基 熙

〈本協會 研修部 教授〉

I. 文化·藝術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文化·藝術의 파괴행위를 살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무수한 수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文化·藝術品의 파괴와 약탈을 당해왔고; 오늘날 까지 文化財의 일부가 손상 내지 투척되어 가긴 하면서도 그런대로 면면히 한국의 5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끔 古都인 경주·부여 등지에서 王陵이나 古墳이 盜掘犯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신안 海底에서의 고대중국유물들을 불법인양한 자들이 한결 같이 해외밀반출을 기도하다 적발되었다는 보도에 접할 때 마다 한껏 분노마저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수개월씩 걸려 몰래 文化財를 도굴 내지 인양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갔을런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생각으로는 그들이 돈에 눈이 너무 어두워 조국의 귀중한 文化遺産을 일시적으로 망각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文化·藝術品이란 美를 창출해 내는 內的精神活動의 所産으로써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시 되는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II. 生態學的 文化遺産의 새로운 認識

한편 어떤면에서는 몇가지 文化·藝術品의 도굴이나 밀반출 기도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행히 발각되어 잡히면 유품들은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면 될 것이고, 이때 무지막지한 도굴범에 의하여 손상된 부분은 현대의 우수한 기술과 약품으로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수리가 되어 관람객을 위하여 계속 전시되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앗차하는 순간에 밀반출이 성공되어 해외로 유출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상들의 열의 존재와 그 가치는 어느 하늘아래가에서 소중하게 보

관되어 줄 수 있다는 다소의 위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文化·藝術의 도굴이나 불법인양 밀반출사건 이상으로 더욱 심각하고, 더욱 크고, 더욱 소중한 유서깊은 사적지나 자연경관 등의 環境文化遺產破壞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우리들은 開發과 經濟成長이라는 미명하에 유서깊은 사적지와 건축물과 거리,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치림, 정다운 구릉지들이 무참히 파괴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도로의 확장으로 끝내 밀려나 大漢門과 獨立門, 東大門 밑으로의 지하철 개통, 특히 최근에는 올림픽대교의 건설계획이 공포되자 백제토성사적지의 위기에 대한 시민의 반발등은 아직도 文化財를 창작품만으로 잘못 생각하는 開發論者들의 한면 밖에 보지 못한 발상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古都들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냄새로 변질되어가다가 하면, 진귀한 文化財의 일부는 아직도 成長論者들의 인식한 지원금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딱 묶인 채 비좁은 창고 같은 곳에서 부패와 부식으로 그 질이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애석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文化財의 도굴이나 불법인양에 대하여 신문지상의 대서특필에 분노하기에 앞서 이미 유럽이나 전세계가 그 文化·藝術品이상으로 그러한 걸작품을 낳게 해준 生態學的 배경 즉, 서구리와 등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적지나 풍경 그 자체의 자연환경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경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귀중한 자연경관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나 자연생성물을 개발로부터 지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이며,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Ⅲ. 이태리의 環境破壞가 주는 교훈

“지금 이태리를 방문하라. 이태리인들이 그들의 環境文化遺產을 파괴하기 전에” (Visit Italy Now, before Italian Destory It)라고 유럽의 한 여행사가 외치는 선전글귀는 단순한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이라기 보다 이태리편에서 보면 그들의 環境文化遺產의 파괴를 못내 안타까워 하는 가슴 애이는 절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과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 중 현대문명에 파괴되어 가는 이태리의 애절한 環境寫眞 전시에 대한 목록에서 “이태리는 구제되기에는 너무 늦었는가?” (Italy - too Late to be Saved?)라고 제목을 달아 팜프렛을 편집한 바 있는 環境保護主義者 로베르토 브람빌 (Roberto Brambill)은 다음과 같은 점을 비통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들의 대체할 수 없는 돌도 없는 環境文化遺產을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遺物들이 구제될 수 있겠는가?” 라고...

Ⅳ. 우리나라의 環境破壞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環境問題 역시 이태리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

국민들은 어떤 예술 조각품이나 동상 등의 파괴에 대해서는 온통 흥분하게 되지만, 45억년의 신비가 깃든 북한산 개발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開發論者들, 인천 앞 바다에서 망둥어와 조개가 수십톤 썩이나 집단 폐사하는 등 30억년이나 이어 온 해양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海洋管理責任者들, 이미 유서깊은 大漢門과 獨立門이 헐린바 있고, 東大門 밑으로 지하철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소음·진동에 큰 고역을 당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천년의 역사적 신비가 숨쉬고 있는 백제토성의 史的文化地를 파괴하면서까지 올림픽 대교를 건설하려다 조금 주저 않았던 市政責任者들, 공단조성 10년이 채 못되어 이주민을 거론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된 工團政策立案者들,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 없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土地會社長님들, 아파트의 실제 값보다 채권액이 더 많게 책정되도록 부채질한 土地 브로카들, 기묘한 수목과 기암괴석을 불법채취하여 자기 정원으로 수집하는 별난 文化人들, 이렇게 개발일변도와 소유욕에 가득찬

물지각한 자들의 행동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신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들의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과 현실적인 물량성장주의에 의해 우리나라의 유서깊은 古都와 유수한 山河들은 현대문명의 거센물결로 인하여 점점 오염과 파괴가 자행되어 가고있고, 지역자연경관은 工業化和 都市化的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그 풍요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청정한 강물과 연안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에 의해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大祭典을 앞둔 우리들로서는 큰 잔칫날을 맞아「우리의 것」을 마음껏 선보이려 하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만에 이미 귀중한 環境遺産을 너무도 많이 잃어 버렸고, 현재까지도 올림픽 대교건설계획이 좀 누그러지긴 했으나 백제토성 史蹟地가 아직도 개발에 가리워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人間은 빵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녹지와 공간등의 快適性이나 사적지와 자연경관등의 審美性의 요소가 부족하면 소외감을 가진다. 이 소외와 불안감은 인간행동에 그늘을 지우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의 인간의 대인관계는 냉정해지고, 친밀도가 희박해지며, 연대성의 결여로 “자기는 자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라는 지극히 물인정하고 냉혹한 사회를 형성하게 한다.

V. 이태리의 環境保全運動

이와같이 環境問題가 심화되어 가는 것에 이태리의 저널리스트 람베르티 소렌티노(Lamberti Sorrentino)는 “이태리가 작은 것(경제성장)을 얻으려다 보다 큰 것(사적 및 자연경관)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정부기관이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무감각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혹평까지 서슴치 않는다.

또한 環境保護團體인 이탈리아 노스트라(Italia Nostra)나 피렌제 비바(Firenze Viva)등은 文化·藝術의 창작품과 자연환경유산의 유기적인 구조의 상관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의치고 있다. 즉 프레스코(Fresco)* 벽화가

벽에 連繫된 예술 걸작품인 것과 같이 그 벽은 건물에, 건물은 광장의 회랑에, 회랑은 도시에, 도시는 그 자체의 자연적인 환경에 상호관련되어 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태리의 文化·藝術을 논할 때 이태리의 生態學的인 자연환경문화유산을 평가하지 않고 그 벽화 하나만을 강조하여 보존 내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비꼬고 있다.

* Fresco : 〈프레스코 벽화법〉 : 갓 회칠한 벽면에 수채화를 그리는 벽화법

VI. 開發이나, 保全이나 ?

또한 오늘날 세계의 7 번째 산업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이태리의 거대한 경제적 변화는 이태리 전 국토의 기반을 흔들거리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자기가 창조한 것에 파멸당해 가는 소설의 주인공 프랑켄스타인(Frankenstein)*과 같다고 할 것이다. 즉, 아름다운 해안에 정유공장을 설치하여 4천마일의 해변과 연안을 기름덩이로 뒤덮었으며, 그 연안중 140,000 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와 산업폐기물은 바다를 영구적으로 오염화하고 있으며, 내륙에서도 공업쓰레기 더미가 만성이 되어 유명한 리스토의 명물재료였던 밀라노의 쌀생산을 오염 내지 감소화시키고 있으며, 프로토벤네레(Protonere) 같은 명승지는 산업화의 부산물로 휴양지를 폐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계속적인 무관심은 어찌된 일이나고 통렬하게 꾸짖고 있다. 그뿐 아니라 로마나 토란토 같이 도로나 집운반을 위해 형성된 도시들은 피아트 자동차에 의해 숨막힐 지경이며, 전통적 건물은 도시계획의 확장에 의해 그 고전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역사적 중심지를 조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가거나, 도시와 긴밀하게 연계되던 시골의 풍요롭던 자연경관마저 점점 그 조화를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해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은 자기들 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자연경관지구인데도 아파트나 호텔, 빌라의 건설을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공자연녹지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한다.

* Frankenstein : Shelly의 부인이 쓴 동명의 괴기소설 (1818)의 주인공, 자기가 '만든 괴물로 인하여 파멸되었음. 즉 자기가 만들어낸 저주 (고민)의 씨, 창조자에 대한 위협으로 비유됨.

소렌티노는 “지금 당신이 엄청나게 크게 지은 새 건물을 볼 수 있는 조국은 어느 누구의 눈물도 흘리지 않도록 할 만큼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현재의 환경파괴에 크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노스트라 등 환경보호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풍치립으로 영구히 보전되어야 할 12만 본이나 되는 아름답리 수목들이 투기성 있는 호텔이나 별장 허가 때문에 합법적으로 벌채되었고, 대중들이 즐겨찾던 관광명소들은 몇몇 재벌들의 소유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통해 한다.

이와같이 거대한 경제 성장에 밀려난 환경위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위에 적시된 바와 같은 환경문제의 위기가 주는 교훈이 있에서 공업화·도시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길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環境文化遺産은 한번 잘못해서 오염되거나 파괴되면 그 복구에는 장구한 시일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성장」이나 「보전」이나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을 근간으로 하는 깨끗한 성장에로의 조화의 문제가 더 바람직하다. 「개발」과 「보전」을 선후의 문제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문제로 볼 경우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로 인한 이로운 영향(프라스 면)과 해로운 영향(마이너스 면)을 사전에 평가·분석하여 해로운 영향을 감량화·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서독에서는 개발과 물질문명을 탈피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로의 복귀를 회구하는 새로운 代案文化가 형성되어 간다고 한다. 분명 보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요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VII. 人間中心 開發로의 轉換

그래서 1895년 부터 시작된 영국의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 Act에 의한 민간주도운동)은 아름다운 해안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5년 부터 「넵툰계획(Enterprise Neptune)에 의하여 민간주도로 해안매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온 결과, 현재 웰즈 및 북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해안선 980마일을 사들여 영구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잘 보존함으로써 전세계 개발우선국가들에게 선망의 표본이 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찌기 맞이한 결과 테임즈江의 경우 흐리는 데는 20여년간이었으나 정화하는 데는 100여년간에 걸쳐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제 겨우 물고기를 회생시키고 있다고 연일 신문에 매서 특필하고 있다. 보전을 등한시한 의욕적인 개발에 쉽게 오염된 강을 정화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는 교훈은 오늘날 늦게나마 전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성장의 기준에 큰 준거의 틀이 되기도 한다.

한편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도시들도 이제 자동차나 새로운 빌딩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구조물은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고 자동차를 소형으로 개발하거나 새 건물을 기존의 건물에 조화되는 선에서 신규허가를 하며, 보존이 필요한 도시구조물과 촌락의 형태는 법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금지하면서까지 보존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적 중심지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킴으로써 대기의 정화운동은 물론 인간중심의 도시로 전환하려고 애쓰고 있다. 농촌의 황폐화 문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농약과 金肥살포의 절제로 토양보존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도심지와 연계된 아름다운 시골풍경도 도시인의 안식처가 되도록 보전하려는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인체를 비유해서, 머리는 몸체나 수족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文化·藝術의 결과품도 그 본 바탕이 없다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文化·藝術品이 숨쉬고 있는 기묘한 건축물, 고풍이 깃든 정든거리, 도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 흐르는 시냇물과 새소리, 비틀어진 소나무와 잡목이 자라는 야산, 어머니 품같이 마음껏 안겨보고 싶은 풍요로운 시골풍경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生態學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앞날을 위해 적정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VIII. 環境破壞에 대한 우리의 反省

우리는 지나온 수년간에 걸쳐 너무나 급하고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써오면서도 우리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맑은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푸른 숲, 수려한 자연경관 및 사적지 보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해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결과 서울등의 역사적 사적지와 고풍은 거센 현대문명의 빌딩과 도시계획에 밀려 점점 우리의 것을 상실해 가고 있고 대도시, 도심지의 하늘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우리나라의 젖줄인 강물은 이제 몇 조원을 들여야 정화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다. 남산의 소나무가 아황산가스 등에 의하여 20%나 고사되어가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밭이 시리도록 밟아온 우리의 농토도 과도한 농약과 금비살포로 토양이 점점 오염화 되어 박토로 전락하면서 부터 역학조사 결과 주민의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몇몇 주요 연안은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오염에 의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서해안은 간척과 매립으로 미래의 마지막 寶庫인 연안의 수 많은 해조류와 양식어장이 점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명했던 대천 해수욕장등은 외국인의 출입이 자제될 정도로 오염되어 가는 현실이라니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성장과 보전과의 조화를 절실하게 명심할

때가 되었다. 인간은 결코 돈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우선 생명체인 이상 무엇보다 우선하여 생존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안전성, 보전성, 건전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을 위해 경제성, 편익성, 쾌적성, 안정성, 연대성, 공정성 등이 골고루 실현되어야 하며, 끝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지적활동의 충족을 위하여 다양성, 심미성, 창조성 등 상호관련되는 변수들이 균형있게 발전되고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경제성장에만 너무 치우치면 공기나 물의 오염 등으로 안전성과 보전성이 상대적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경제성과 편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편의 연대성과 건전성은 상실 될 것이다. 또한 안정성과 공정성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사회가 획일화 되어 다양성과 창조성등이 결여 되어 발전이 없을 것이다.

IX. 世界的 環境保全運動

“하나 뿐인 지구” “폐쇄된 환구”라는 말은 환경문제와 지구적 관리 내지 범 세계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大祭典을 앞둔 우리나라는 이태리의 環境破壞가 주는 절박한 교훈을 거울삼아 環境의 質保全運動은 물론 사적 및 풍경지 보존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고도경제 성장 보다는 균형성장으로, 量的成長보다는 質的保全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環境保全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현행 기구도, 예산도, 힘도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環境危機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어 영구적으로 파괴의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등의기구가 설치되어 환경보전운동을 범세계적으로 공동연대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영국, 미국 등 주민운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국민신탁」 「시에라클럽」 등 민간단체가 환경보전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수년전 부터 환경보전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차원에서 범국민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과 성장에의 큰 관성의 힘때문에 활동범위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UCN 種 보존위원회가 “오늘은 새, 내일은 인간”이라고 내건 환경위기에 대한 슬로건은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甲川에 모처럼 날아온 황새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러한 환경속에서는 머잖아 인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올 외국인들에게 너무 크고, 웅장하고, 새것을 보이려 하다 우리것을 잃어버리기 보다 작고, 오밀조밀하고, 가냘픈 선과 운율이 있는 옛것 즉, 우리의 것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보전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재화를 축적하기에 너무 급급했고 큰 빌딩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너무 서둘렀으며, 文化·藝術의 걸작품을 전시할 진열장만 필요하다는 관념에 젖어 수십만평의 문화사적지를 수만평으로 줄이는 등 많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연녹지와 공간을

새 건물 짓기에 낭비하여왔다. 즉, 장식장과 부엌을 넓히기 위해 아름다운 정원을 없앤 격이 되었다.

우리 전국민은 이제부터라도 파우스트적 인간(Faustianman)*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대체할 수 없는 들도없는 환경유산 즉, 맑은 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푸른 숲, 수려한 자연 경관 및 역사적 의미가 깃든 유명 사적지 등을 보전하는 범국민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자. 그리고 개발로 인하여 파괴되고 소멸되어가는 수천년의 신비가 깃든 사적지 및 풍경보존을 위해 보다 차원높은 환경문화운동을 전개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걸작품은 역사적 의미가 깃든 사적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특히 인공이 가미되지 않는 세계의 경치, 풍경, 또한 인간이 바꿔 놓거나 일체 손대지 않는 자연그대로의 산이나 숲, 자연경관이기 때문이다. *

* Faustianman : Oswald Spengler 는 「성장에 눈이 너무 어두워 인간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가리켜 악마에게 돈을 받고 지식을 팔아 냈이 나간 사람으로 만든 파우스트적 인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풃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